

# 청소년 사회참여 기회 보장

최인정 도의원 대표 발의 '도교육청 학교 청소년지원 기본 조례안' 심의·의결  
참여 예산 편성 내용·고용확대 위한 교육지원·청소년 시설 운영 내용 등 포함

도내에 청소년 삶의 수준 향상과 능동적인 사회참여, 자립기반 형성을 통한 청소년 권익증진의 기회가 보장될 전망이다.



으로 경제와 사회뿐만 아니라 교육, 문화, 체육, 창업 등의 기본계획을 수립하면, 전라북도교육청은 이를 위해 행·재정적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을 담았다.

특히, 도교육청 예산편성 시 청소년들이 참여해 이들을 위한 예산 편성할 수 있는 내용과 청소년의 고용확대를 위한 교육지원 그리고, 청소년 관련 시설을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에 따라 오는 2019년에 이전하는 군산시 월명초등학교 부지에 50미터 전용레인 수영장뿐만 아니라 청소년

관련 복합시설 계획이 탄력받을 전망이다.

아울러 월명초 부지에 수영장뿐만 아니라, 청소년 복합시설이 들어설 전망이다.

최인정 의원은 "월명초가 이전하면 이 공간에 국제규격 수영장뿐만 아니라 청소년 복합시설이 들어설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박차를 가해나가겠다"면서 "청소년 복합시설은 '전북도교육청 학교 청소년지원 기본 조례'를 충분히 소화할 수 있도록 계획을 철저히 세워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진성 기자



회의 열리기 전 분위기는 '화기애애' / 조국 민정수석이 15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 앞서 총장표 경제수석, 김현철 경제보좌관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 “반평생 예술혼으로 살아온 열정 부안에 새로운 미래 이끌어 볼 것”

서주원 작가, 부안군수 출마 선언  
“향우들이 자부심 갖고 마음껏 자랑할 수 있는 고향 만들 것” 강조



고 출마 선언을 했다.

그는 “부안군수 출마를 결심한 뒤, 고향에서 활동을 하다 보니 부안군민의 적폐청산과

이러 “현재 자전타전으로 거론되는 부안군수 후보 중에서는 가장 젊다”며 “젊고 참신한 ‘부안의 젊은 일꾼’으로 출사표를 던지고 부안 정신과 정치, 그리고 부안 경제의 새바람을 반드시 일으켜 부안군민과 출향 향우들이 자부심을 갖고, 마음껏 자랑 할 수 있는 고향을 만들어 보겠다”고 설명했다.

서씨는 “반평생 순결한 예술혼과 뜨거운 심장으로 살아 온 열정과 신념을 다 바쳐 부안의 새로운 미래를 이끌어 보겠다”며 “부안다운 부안을 만드는데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뉴스시스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출마 선언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방송작가이자 소설 '봉기' 작가인 서주원(54·사진)씨가 부안군수 출마를 선언했다.

서주원씨는 15일 전북도의회에서 회견을 열고 “새로운 부안, 희망찬 부안의 새 그림을 그리고자 한다”

정치개혁의 열망도 매우 강하다는 걸 실감했다”며 “부안의 젊은 일꾼으로 나서서 부안의 적폐청산과 정치적 지도를 바꿔 보라고 당부하는 분들도 적지 않았다”고 밝혔다.

## 도, 오늘부터 자동차세 연납신청 접수

31일까지... 납부시 연세액의 10% 공제

전북도는 이달 16일부터 31일까지 1년분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면 연세액의 10%를 공제하는 연납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15일 밝혔다.

자동차세는 1년분 세액을 반으로 나누어 6월과 12월에 각각 부과하도록 되어 있으나 연납제도를 활용해 1월에 미리 납부하면 연세액의 10%를 공제받을 수 있다.

자동차세 연납 신고 납부기간은 1년에 총 4번이며, 1월에 납부할 경우 연세액의 10%, 3월은 7.5%, 6월은 5%, 9월은 2.5%의 세액을 공제받게 된다.

자동차세 연납신청은 시군 세무부서 또는 읍·면사무소, 동 자치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로 신청할 수 있으며, 위택스(www.wetax.go.kr)와 스마트폰(스마트위택스 앱)으로도 신청

가능하다.

또한 기존에 자동차세를 연세액으로 납부한 차량은 별도의 연납 신청이 없어도 1월 중에 세액이 공제된 고지서를 받을 수 있으며, 이달 31일까지 가까운 금융기관의 CD/ATM조회 납부, 가상계좌 이체, 인터넷(위택스) 조화납부 등을 활용하여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자동차세를 연납한 뒤 자동차를 양도하거나 폐차할 경우 양도(말소)일 이후의 세액은 환급받을 수 있으며, 다른 시군으로 전출할 경우에도 자동차세를 따로 납부할 필요가 없다. /김진성 기자

## 회의 열리기 전 분위기는 '화기애애'

조국 민정수석이 15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 앞서 총장표 경제수석, 김현철 경제보좌관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 도, 다문화지원정책 개편

99억1600만원으로 글로벌마을학당 등 21개 사업 추진  
늘어나는 외국인 주민·도민 중심으로 사업대상 확대

전북도는 15일 14개 시군 다문화가족지원 업무 담당공무원과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관계자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다문화가족지원 사업설명회를 열었다.

설명회는 2018년도 다문화가족지원사업의 추진내용 및 추진방향 설명과 현장 담당자의 의견수렴을 들었다.

전북도는 올해 작년 대비 5억2600만원을 증액한 99억1600만원의 사업비를 21개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올해 대표사업은 글로벌마을학당으로 기존의 다문화마을학당, 행복플러스사업, 다문화어울림문화교육지원사

업을 통합 개편, 총 15억25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한다.

다문화가족 중심에서 늘어나는 외국인주민(외국인노동자, 난민 등)과 도민 중심으로 사업대상을 확대하여 '다문화이주민 지원정책'으로 전환하기 위한 첫 단추를 끼운다.

찾아가는 서비스로 수준별 한국어교육과 자녀교육 등을 실시하고 서로 다른 언어와 문화적 차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족생활 지원을 위해 다양한 관계향상프로그램을 제공, 문화·예술·체육 분야 프로그램 진행으로 다문화의 강점을 살릴 예정이다. /김진성 기자

## 전북도내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175명

환경운동연합 집계

전북지역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가 175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전북환경운동연합에 따르면 도내에서 가습기 살균제 피해를 입었다고 신고한 사람은 175명으로 집계됐다.

2011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환경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접수한 수치다.

이 중 34명은 사망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 신고는 2011~2013년에 8명(사망 1명), 2014년 3명(사망 1명), 2015년 24명(사망 4명), 2016년 119명(사망 27명), 2017년 21명(사망 1명)이었다.

최근 신고가 집중된 이유는 대통령 사과와 피해구제법 시행 등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피해가 인정되는 경우는 드물다.도내에서 피해판정을 받은 121명 중 피해가 인정된 이는 8명에 불과하다.

전북환경운동연합 관계자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를 호소하는 이들이 급증하고 있지만 실제 피해가 인정되는 사례는 드물다”면서 “정부는 지속적인 피해 상황 파악과 피해자가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상민 기자

## 올 정기분 등록면허세 50억 부과

전북도는 2018년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50억원(19만2천건)을 부과했다.

이는 지난해에 비해 5억원(11.2%)이 증가한 수준으로, 주요 사유는 태양광발전시설 확대에 따른 전기사업허가 증가로 분석된다고 밝혔다.

정기분 등록면허세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매년 1월 1일) 현재, 면허의 유효기간이 정해지지 않거나 그 기간

이 1년을 초과하는 각종 인허가 등의 면허를 보유한 자이다.

과세대상은 사업의 종류와 규모, 종업원 수 등에 따라 1종부터 5종까지 5단계로 구분, 세율은 인구 50만 이상인 전주시는 18,000원에서 67,500원, 기타 시는 7,500원에서 45,000원, 군지역의 경우 4,500원에서 27,000원이 차등 과세된다.

납부기한은 1월 31일까지, 전국 금융기관과 우체국을 통해 납부가 가능하다. /김진성 기자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www.ijmaeil.com